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총평 · 해설

2025학년도 6월 모의 평가

국어 총평

- 2024. 6. 4. 상상국어평가연구소

01 출제 경향 및 난이도

올해 6월 모의 평가는 불수능이었던 24학년도 수능보다는 다소 쉬웠지만, 역시 만만치 않았다. 독서는 3지문 모두, 문학은 6작품 중 4작품이 EBS와 연계되었다. 그러나 독서의 경우 단순 소재 차원에서의 연계라는 점에서 실질적 연계율은 높지 않았다. 독서는 사회, 과학에 비해 논리학 복합 지문인 인문이 상당히 어려웠다. 독서 인문 세트의 해결 여부가 1등급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문학은 작품 난도가 대체로 지난 수능보다 낮은 편이었지만, 일부 문항의 경우 세부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거나 서사 맥락과 시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되어 쉽지 않았다. 선택 과목도 전반적으로 까다로웠다. 아예 새로운 문항을 제시하거나 기출 문항을 새롭게 조합하여 학생들의 체감 난도를 높였다. 화학은 지문 정보와 선지의 분석에 시간이 소요되도록 문항을 설계하는 기존의 경향을 유지했고, 언어도 지난 수능처럼 2개 정도의 고난도 문항을 배치했다. 1등급 컷은 화학 87~88, 언매 85~86점으로, 24학년도 수능(86/84, 원점수 기준)보다 약간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변별력을 확실히 갖춘 시험이라 할 수 있다.

02 영역별 분석

■ 독서

독서론의 경우 기존의 평가원 출제 스타일을 유지했고, 지문은 여러 글 읽기와 관련된 평가와 전략을 병렬식으로 구성했다. 3번 문항의 경우 지난 수능과 달리 줄글 형태로 제시되어 자료의 분량이 많았으나 지문의 정보와 사례를 단순 대응시켜 평이했다. 사회(수특, p. 286)는 핵심 개념을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연계가 이루어졌다. 경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스톡옵션, 사외 이사 제도 등 일상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용어들을 활용했고, 각 문단이 유기적인 흐름으로 구성되어 독해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4번 문항의 경우 주로 인문 복합에서 출제되었던 내용 전개 방식 문항이라는 점에서 특이했다. 5, 6번 문항은 추론의 정도가 높지 않아 평이했다. 7번 <보기> 문항은 지문의 정보들이 종합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보기>에 두 사람의 의견을 대비하는 등 낯선 형식을 도입했지만 정보의 사실관계만 확인하더라도 풀리는 선지들이 일부 있어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과학(수특, p. 307)은 원자 간 결합 양상을 연계했고 지문은 다소 길어졌다. 공유 결합의 개념을 바탕으로 에틸렌 중합의 과정을 인과적으로 제시하여 정보량은 많은 편이었으나 문항의 난도는 높지 않았다. 10번 <보기> 문항의 경우 결정 영역과 여러 특성 간의 비례/반비례 관계만 정리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화학 과목 선택 여부에 따라 유불리 문제가 작용할 수 있는 지문이다. 도덕 문장의 진리 적합성과 그에 대한 비판을 다룬 인문 복합(수특, p. 283)은 연계 지문의 한 학자의 주장을 심화하여 (가)로 제시하고 (나)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내용 관련 문항이 5개로 늘어난 점, 학습 활동지 형식을 활용한 신유형 문항(14번)이 제시된 점,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논리학 분야를 전면적으로 다룬 점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이번 독서 파트에서 가장 난도가 높은 세트라 할 수 있다. 13~16번 문항 모두 까다로웠다. 독서 17문항 중 ①번 정답 선지가 무려 5문항이라는 점도 학생들의 풀이 과정이 매끄럽지 않게 된 요소라 할 수 있다.

- **문학** 문학은 작년 수능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었다. EBS 연계 작품으로는 「이대봉전」, 「우부가」, 「아버지의 땅」, 「청산행」이, 비연계 작품으로는 「타농설」, 「사실과 관습 : 고독 이후」가 출제되어 약 67% 연계율을 보였다. 「우부가」의 출제 부분이 EBS 연계 교재에 모두 수록되었고, 「아버지의 땅」의 [중략 부분의 줄거리] 이후에 수록된 부분이 EBS 연계 교재에 모두 수록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갈래 복합은 24학년도 6모와 마찬가지로 ‘(가)+(나)’ 5문항이 제시되었고, 현대시가 4문항 출제되었다. 작품을 꼼꼼하게 읽었는지가 관건인 세부 내용 파악 문항이 다수 출제되어 학생들의 실수를 이끌어 내려 한 점, 부분 서술 방식을 도입한 점(27번 문항)이 특징적이었다. 발화의 서사적 기능을 파악하도록 한 28번 문항, 두 소재의 기능을 비교하도록 한 29번 문항, 인간과 세계를 규정하는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해야 하는 34번 문항이 까다로운 편이었다.
- **화법과 작문** 화법(35~37)은 친숙한 소재와 평이한 유형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화작 융합(38~42)은 처음으로 안내문 형식의 지문이 제시되었고, 정보량도 많은 편이었다. (가)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전의 건의 내용을 추론하도록 한 38번, (나)의 문단별 내용 조직 방법을 비교한 41번이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했다. 작문(43~45) 또한 기존의 자료 활용 문항과 내용 생성 문항을 융합적으로 설계하여 [A] 앞뒤 문맥을 고려하는 것이 선지 판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45번은 기존의 고쳐쓰기 문항에 비해 선지에서 판단해야 하는 요소가 많았으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을 것이다. 대체로 꼼꼼한 정보 확인을 요하는 문항을 다수 제시했고, 신유형의 문항도 적지 않아 쉽지 않았다.
- **언어와 매체** 언어는 지난 수능과 마찬가지로 어려웠다. 기출에서 단독형 담화 문항으로 출제되었던 내용이 지문형으로 제시된 것이 특이했다. 36번은 지문의 정보와 대화 맥락, 선지에 대한 분석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난도가 높았다. 37번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인 데다가 선지의 용례가 까다로웠고, 39번은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고대 국어의 차자 표기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당황했을 것이다. 이는 성역을 두지 않고 교육 과정 범위 내의 모든 내용이 출제될 수 있다는 평가원의 암시라 할 수 있다. 매체는 다소 평이했다. ‘4+2’의 2세트 구성은 유지하되, 모두 (가), (나)로 분리되지 않고 단일 형식으로 제시한 점이 새로웠다. 그렇더라도 각각 23학년도 6모, 23학년도 수능을 변형하여 출제했기에 기출 훈련을 성실히 한 학생들은 익숙했을 것이다.

03 상상 모의고사와 6모

이번 6월 모의평가는 킬러 문항의 배제,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준킬러 수준의 문항을 골고루 출제하여 난도를 확보하겠다는 지난해 평가원의 기조를 계속 이어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작년 수능처럼 독서와 문학,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난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다만 독서 영역의 지문 간 난도 불균형은 오히려 더 심화되었고, 그에 비해 문학은 세트 간 난도의 차이가 줄었다는 점, 그리고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특정 작품의 EBS 연계 정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은 특이했다. 또한 세부 정보의 확인, 지문의 표현을 변형한 선지 이해, 다양한 정보의 비교와 종합적 응용 등 꼼꼼한 정리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위 ‘의문사’ 당하는 문항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이번 6모에서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다양한 난도와 함께 최신 유형의 문항들을 반영한 모의고사를 반복하여 풀이함으로써 실전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상상 모의고사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시험이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든든한 힘이 되어 줄 것이다.

2025학년도 6월 모의 평가 국어 해설

공통 과목 정답

1	⑤	2	②	3	②	4	①	5	⑤
6	②	7	①	8	④	9	①	10	③
11	③	12	④	13	⑤	14	④	15	①
16	①	17	②	18	④	19	③	20	③
21	④	22	①	23	②	24	⑤	25	②
26	⑤	27	②	28	③	29	④	30	③
31	⑤	32	④	33	③	34	③		

선택 과목(화법과 작문) 정답

								35	③
36	④	37	⑤	38	①	39	⑤	40	④
41	⑤	42	②	43	④	44	③	45	②

선택 과목(언어와 매체) 정답

								35	④
36	⑤	37	①	38	①	39	③	40	②
41	②	42	④	43	②	44	⑤	45	⑤

공통 과목 해설

[1 ~ 3] (독서) 「여러 글 읽기」

1. 세부 내용 파악(정답: ⑤)

1문단에 따르면 필요한 정보를 한 편의 글에서 얻지 못 할 때, 다른 여러 글을 읽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 따르면 ‘읽을 글을 선정할 때에는 믿을 만한 글인지와 읽기 목적과 관련이 있는 글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3문단에 따르면 글들의 정보를 연결하는 것은 여러 글 읽기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략 중 하나이다.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여러 글 읽기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여러 문제를 해

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③ 1문단에 따르면 궁금증 해소를 목적으로 한 글 읽기에서 여러 글 읽기를 사용할 수 있다. 3문단에 따르면 글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전략은 여러 글 읽기에서 사용되는 전략이다.

④ 3문단에 따르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읽기 목적에 맞게 글을 읽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전략 중에는 선택하기 전략이 포함된다. 4문단에 따르면 선택하기 전략은 여러 글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여러 글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읽기 목적과 관련된다.

2. 중심 내용 파악(정답: ②)

2문단에 따르면 ㉠(신뢰성 평가)은 ‘글의 저자, 생산 기관, 출판 시기 등 출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 그 글이 믿을 만한지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읽을 글을 선정하기 위해 출판사의 공신력을 따지는 것은 ㉠을 고려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 따르면 글 내용이 수행 과제, 즉, 읽기 목적과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관련성 평가)과 관련된다.

③ 글이 언제 작성되었는지는 글의 출판 시기와 관련된다. 2문단에 따르면 출판 시기는 ㉠과 관련된다.

④ 1문단에 따르면 오늘날 여러 글에서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읽는 능력은 정보가 산재되어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문단에 따르면 이러한 여러 글 읽기에서 글을 선정할 때에는 ㉠과 ㉡ 모두 중요하다.

⑤ 2문단에 따르면 글 내용에 목적에 맞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과, 저자의 경력과 같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과 관련된다.

3.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정답: ㉡)

4문단에 따르면 조직하기 전략은 글의 정보를 재구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나, 그 앞선 상황에서 기존 글의 구조를 새로운 구조로 재구성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연결하기 전략에 앞서 조직하기 전략을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4문단에 따르면 선택하기 전략은 읽은 글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전략이다. 따라서 동물이 그린 그림의 판매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은 선택하기 전략을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③ 4문단에 따르면 연결하기 전략은 읽은 글들에서 추출한 정보들을 정교화하고 연결하여, 글에 나타나지 않은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글들의 내용을 연결해 새로운 의미를 추출한 ㉓는 연결하기 전략을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④ 4문단에 따르면 조직하기 전략은 글의 정보를 재구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러 글의 정보를 종합해 인과 구조로 재정리한 ㉔는 조직하기 전략을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⑤ 4문단에 따르면 선택하기 전략은 읽은 글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전략이다. 따라서 ㉕는 선택하기 전략을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4 ~ 7] (사회) 「과두제적 경영」

(연계: 수능특강 독서 286쪽)

4.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정답: ㉑)

이 글에서는 과두제적 경영의 개념과 이의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과두제적 경영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동기 부여 방안과 공적 제도들과 같은 보완책을 소개하였다.

[오답풀이]

② 이 글에서는 유사한 원리들을 분석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하고 있지 않다.

③ 이 글에서는 서로 다른 유형의 경영 방식인 공동체적 경영과 과두제적 경영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론적 근거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④ 이 글에서는 스톡옵션의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나 주식 평가 보상권 등의 예시를 들고 있지만 가설을 세우고 그에 대해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 가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

⑤ 이 글에서는 과두제적 경영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지만 해결책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해설하고 있지 않다.

5. 핵심 개념 이해(정답: ㉕)

4문단에 따르면 소수의 경영진이 과두제적 경영을 하는 경우, 그들이 ‘사익에 치중하면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기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들은 은폐하거나 경영 상황을 조작하여 발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경영진과 다수 주주 사이의 이해가 일치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보와 권한을

독점한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가 훼손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 따르면 과두제적 경영은 ‘소수의 의사 결정에 따른 수직적 경영으로 효율성을 지향’한다.

② 3문단에 따르면 과두제적 경영은 ‘소수의 경영자로 이루어진 경영진이 강한 결속력을 가지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구조인데, 이런 체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경영진을 중심으로 안정적 경영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과두제적 경영은 강한 결속력을 가진 소수의 경영자로 경영진을 이루어 경영권 유지에 강점이 있다.

③ 3문단에 따르면 과두제적 경영을 통해 안정적 경영권이 확보되어 ‘기업 전략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맞춰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첨단 핵심 기술의 개발에도 유리한 면이 있다.’ 따라서 과두제적 경영은 경영권이 안정되어 중요 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계속하는 데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④ 4문단에 따르면 과두제적 경영에서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에 집중하면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투자를 유치한 뒤 주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과두제적 경영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6. 세부 내용 추론(정답: ㉒)

5문단에 따르면 스톡옵션 권리는 ‘일정 수량의 주식을 계약 시에 정한 가격으로 미래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경영자는 계약 시에 정한 가격보다 주식의 가치가 높아졌을 때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주식 평가 보상권은 ‘기업의 주식 가치가 목표치 이상으로 올랐을 때 경영자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스톡옵션과 주식 평가 보상권 모두 경영자의 성과 보상에 미래의 주식 가치가 관련된다.

[오답풀이]

① 5문단에 따르면 경영자가 스톡옵션의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는 자유’이다. 따라서 스톡옵션의 권리를 가진 경영자는 주식 가격이 미리 정해 놓은 것보다 하락하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다.

③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경영 공시 제도는 ‘기업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경영진과 주주

들 간 정보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경영 공시는 주주가 기업 경영 상황을 파악하여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다.

④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사외 이사 제도는 ‘기업의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이사로 참여시키도록 하는’ 것이며 ‘독단적인 의사 결정을 견제함으로써 폐쇄적 경영으로 인한 정보와 권한의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사외 이사 제도는 기업의 의사 결정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경영의 개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 평가할 수 있다.

⑤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경영 공시 제도를 통하여 ‘경영진과 주주들 간 정보 격차가 줄어들 수 있’고, 사외 이사 제도를 통하여 독단적인 의사 결정을 견제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 공시 제도와 사외 이사 제도는 기업의 중요 정보에 대한 경영진의 독점을 완화할 수 있다.

7.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정답: ㉠)

4문단에 따르면 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에 치중하면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소수의 경영진만이 실질적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기>에 따르면 X사는 경영진이 주기적으로 다른 주주들로 교체되고, 모든 주주가 의사 결정권도 균등하게 행사한다. 즉, X사는 경영진과 주주들 간 정보 격차가 크지 않고 주주들 사이의 평등성이 강하여 과도한 정보 격차나 권한 집중과 같은 폐해를 보이지 않는다.

[오답풀이]

② 2문단에 따르면 ‘모든 주주가 경영진을 이루어 상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의사 결정권도 균등하게 행사하는’ 것을 공동체적 경영이라고 한다. 반면 소수의 경영진의 의사 결정에 따른 수직적 경영 체제를 ‘과두제적 경영’이라고 한다. 4문단에 따르면 과두제적 경영에서는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보기>에 따르면 X사는 소수의 주주만으로 경영진을 구성하지만 경영진이 주기적으로 다른 주주들로 교체되고 경영 이익의 분배와 같은 주요 사항은 전체 주주가 공동으로 의결한다. 따라서 X사는 주주가 실적에 대한 이익 분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직적 경영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지만, 현재 경영진이 고정되는 구조로 바뀐 것은 아니다.

③ 3문단에 따르면 소수의 경영진이 강한 결속력을 가지면서 실질적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과두제적 경영’이다. <보기>에 따르면 A는 모든 주주가 의사 결정권을 갖는 현재의 경영 체제를 소수의 경영진이 결정 권한을 갖는 과두제적 경영 체제로 바꾸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A가 현행대로 경영 방식을 유지하여야 시장의 점유율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2문단에 따르면 ‘공동체적 경영’은 모든 주주가 경영진이 되어 상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수평적 구조이다. <보기>에 따르면 원래 X사는 주주들이 모두 함께 경영진이 되어 중요 사항에 대해 동등한 결정권을 보유한 공동체적 경영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B는 이러한 예전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B가 수평적인 의사 결정 구조로의 전환을 최소한으로 하여 효율적 경영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3문단에 따르면 ‘과두제적 경영’은 소수의 경영자가 기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는 형태이다. 또한 이러한 체제에서 경영진은 강한 결속력을 가지므로 안정적 경영권이 확보될 수 있다. <보기>에 따르면 X사는 경영진이 주기적으로 다른 주주들로 교체되고, 전체 주주에게 기업 경영 상태가 공개되는 등 과두제적 경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A와 B가 현재 X사가 안정적인 과두제적 경영을 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한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8 ~ 11] (과학) 「플라스틱의 합성 방법과 특징」

(연계: 수능특강 독서 307쪽)

8. 세부 내용 파악(정답: ㉠)

4문단에 따르면 과산화물 개시제의 불안정한 원자는 안정해지기 위해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 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 버리면서 에틸렌의 한 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며 단일 결합한다. 그러면 다른 쪽 탄소 원자는 공유되지 못한, 홀로 남은 전자를 갖게 되면서 불안정해진다. 이를 통해 에틸렌은 본디 안정하지만, 과산화물을 개시제로 쓰면 과산화물과 결합하면서 불안정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단위체인 작은 분자가 수없이 반복 연결되는 중합을 통해 만들어진 거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단위체들은 중합

을 거쳐 거대 분자를 이룰 수 있다.

② 3문단에 따르면 ‘에틸렌은 두 개의 탄소 원자와 네 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지는데, 두 개의 탄소 원자가 서로 이중 결합을 하고 각각의 탄소 원자는 두 개의 수소 원자와 단일 결합을 한다.’ 그러므로 에틸렌 분자에는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모두 존재한다.

③ 1문단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성형할 수 있는, 거푸집으로 조형이 가능한’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에서 온 말로, 열과 압력으로 성형이 되는 성질과 관련이 있다.

⑤ 4문단에 따르면 과산화물 개시제의 불안정한 원자는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 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 버린다. 이를 통해 탄소와 탄소 사이의 이중 결합에서 하나의 결합은 나머지 하나의 결합보다 그 세기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9. 중심 내용 파악(정답: ①)

4문단에 따르면 과산화물 개시제의 불안정한 원자는 안정해지기 위해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 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 버리면서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며 단일 결합한다. 그러면 다른 쪽 탄소 원자는 공유되지 못한, 홀로 남은 전자를 갖게 되면서 불안정해진다.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을 하며 불안정한 탄소 원자를 계속 생성한다. 이를 통해 성장 중의 사슬은 그 양쪽 부분에서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시제가 결합되지 않은 쪽에서만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2문단에 따르면 단일 결합은 ‘두 원자가 각각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그 두 개의 전자를 한 쌍으로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4문단에 따르면 과산화물 개시제의 ‘불안정한 원자는 안정해지기 위해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 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버리면서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며 단일 결합한다.’ 즉, 기존에 존재하던 에틸렌의 이중 결합 중, 하나의 결합만이 남아 단일 결합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더 이상 결합 상태가 아니게 된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하여 또 다른 불안정한 탄소 원자를 생성하면서 사슬을 이룬다. 따라서 사슬의 중간에는 두 탄소 원자가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공유하는 결합인 단일 결

합이 존재할 것이다.

③ 4문단에 따르면 과산화물 개시제의 불안정한 원자는 안정해지기 위해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 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 버리면서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며 단일 결합한다. 그러면 다른 쪽 탄소 원자는 공유되지 못한, 홀로 남은 전자를 갖게 되면서 불안정해진다.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하여 불안정한 탄소 원자를 생성하면서 사슬을 이룬다. 이를 통해 상태가 불안정한 원자를 지닌 분자의 생성이, 연속적인 사슬 성장 반응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에 따르면 과산화물 개시제의 불안정한 원자는 안정해지기 위해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 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 버리면서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며 단일 결합한다. 그러면 다른 쪽 탄소 원자는 공유되지 못한, 홀로 남은 전자를 갖게 되면서 불안정해진다.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하여 불안정한 탄소 원자를 생성하면서 사슬을 이룬다. 이러한 과정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서로 다른 두 사슬의 끝이 서로 만나 결합하면 비로소 멈추게 된다. 즉, 공유되지 못하고 홀로 남은 전자를 가진 탄소 원자는 사슬의 성장 과정이 종결되기 전까지 계속 발생할 것이다.

⑤ 2문단에 따르면 ‘두 원자가 각각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그 두 개의 전자를 한 쌍으로 공유하면 단일 결합이라 하고, 두 쌍을 공유하면 이중 결합이라 한다.’ 그리고 4문단에 따르면 과산화물 개시제의 불안정한 원자는 안정해지기 위해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 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 버리면서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며 단일 결합한다. 그러면 다른 쪽 탄소 원자는 공유되지 못한, 홀로 남은 전자를 갖게 되면서 불안정해진다.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하여 불안정한 탄소 원자를 생성하면서 사슬을 이룬다. 이를 통해 에틸렌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들 사이의 이중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되면서 사슬의 성장 과정을 이어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0.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정답: ③)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결정 영역은 ‘사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영역을 말한다. 이러한 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 화학 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보관 용기에서 화학 물질이 닿는 부분에는 화학 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낮아야 하므로 결정 영역이 많은 소재를 쓰는 것이 좋다. <보기>에 따르면 ㉠이 ㉡보다 서로 나란히 조밀하게 배열되기 힘들다. 즉, 결정 영역은 ㉠보다 ㉡에서 많으므로 ㉠(가지를 친 구조의 사슬들)보다 ㉡(직선형 구조의 사슬들)로 이루어진 소재가 적합하다.

[오답풀이]

- ①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결정 영역은 ‘사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영역을 말하며, 이러한 ‘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 플라스틱은 유연성이 낮아 충격에 약하다. 즉, 충격에 잘 깨지지 않도록 유연하게 하려면 결정 영역이 작아야 한다. <보기>에 따르면 ㉠이 ㉡보다 서로 나란히 조밀하게 배열되기 힘들다. 따라서 ㉡보다 결정 영역이 적은 ㉠로 이루어진 소재가 적합하다.
- ②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결정 영역은 ‘사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영역을 말한다. 플라스틱은 이러한 결정 영역이 많을수록 점점 불투명해진다. 즉, 포장된 물품이 잘 보이게 하려면 결정 영역이 작아야 한다. <보기>에 따르면 ㉠이 ㉡보다 서로 나란히 조밀하게 배열되기 힘들다. 따라서 ㉡보다 결정 영역이 적은 ㉠로 이루어진 소재가 포장재로 더 적합하다.
- ④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결정 영역은 ‘사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영역을 말한다. 이러한 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 플라스틱은 밀도가 높다. <보기>에 따르면 ㉠이 ㉡보다 서로 나란히 조밀하게 배열되기 힘들다. 즉, 결정 영역은 ㉠보다 ㉡에서 많으므로 ㉠보다 ㉡로 이루어진 소재의 밀도가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⑤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결정 영역은 ‘사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영역을 말한다. 이러한 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 플라스틱은 열에 의해 잘 변형되지 않는다. <보기>에 따르면 ㉠이 ㉡보다 서로 나란히 조밀하게 배열되기 힘들다. 즉, 결정 영역은 ㉠보다 ㉡에서 많으므로 열에 잘 견디게 하려면 ㉠보다 ㉡로 이루어진 소재가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1. 단어의 의미 파악(정답: ㉢)

㉠의 ‘접하다’는 ‘가까이 대하다.’라는 의미로, ‘교과서에서 접한 시’의 ‘접하다’가 ㉠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깝다.

[오답풀이]

- ① ‘이어서 닿다.’의 의미이다.
 ② ‘소식이나 명령 따위를 듣거나 받다.’의 의미이다.
 ④ ‘이어서 닿다.’의 의미이다.
 ⑤ ‘이어서 닿다.’의 의미이다.

[12 ~ 17] (인문) 「도덕 문장의 진리 적합성」

(연계: 수능특강 독서 283쪽)

12. 세부 내용 파악(정답: ㉣)

(가)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에이어는 도덕 용어의 표현적 용법과 기술적 용법을 구분하였다. 이때 표현적 용법은 도덕 용어가 감정을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이며 기술적 용법은 도덕 용어가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에이어의 입장에서 도덕 용어의 용법은 도덕 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도덕 용어가 사실을 기술하는 것은 모두 기술적 용법에 속한다.

[오답풀이]

- ① (가)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에이어는 도덕 용어는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도 사용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에이어는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② (가)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에이어는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도 사용된다고 보았다. 즉 에이어는 ‘도둑질은 나쁘다.’가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으로 쓰인다면, 이 문장은 감정을 담은 어조로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았다.
- ③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에이어는 분석적 문장이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문장이라고 보았다. 즉 ‘선은 A이다.’가 분석적 문장이려면, 술어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에이어는 주어와 술어의 의미 관계를 통해 어떤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그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라고 보았다.
- ⑤ (가)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에이어는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표현적 용법과 기술적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주장한다. 이 중 진리 적합성을 갖는 것은 도덕 용어가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뿐이다. 즉

에이어의 입장에서 도덕 용어가 표현적 용법으로 사용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갖지 못한다.

13. 세부 내용 추론(정답: ⑤)

(나)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굴은 맛있다.’가 ‘굴은 맛있다면 굴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이는 화자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굴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굴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표절은 나쁘다.’는 화자가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서도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나)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굴은 맛있다면 굴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된 ‘굴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는다.

② (나)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그리고 ‘표절은 나쁘다.’는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지는데, 이와 같은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은 판단적이다. 따라서 ‘표절은 나쁘다.’는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③ (나)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굴은 맛있다.’가 ‘굴은 맛있다면 굴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굴은 맛있다.’ 자체는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

④ (나)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으므로 그 문장은 언제나 판단적이다.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것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라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화자는 굴이 맛있음의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굴은 맛있다.’를 진술할 수 없다.

14. 중심 내용 파악(정답: ④)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에이어는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에이어의 관점에서 도덕 문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 즉 에이어는 도덕 문장이 전건 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어도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이는 (나)의 1문단에서 제기된,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면 도덕 문장과 전건 긍정식의

연관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견해에서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전통적인 윤리학에서는 도덕에 관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전통적인 윤리학자는 도덕적 판단의 근거가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 있다고 볼 것이다.

② (가)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에이어는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에이어는 도덕 문장이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으며, 따라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은 없다고 볼 것이다.

③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에이어는 도덕 문장이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인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에이어는 그 주장의 근거로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도 않고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든다. 즉 에이어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지도 종합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참 또는 거짓이라는 속성을 갖지도 않는다고 볼 것이다.

⑤ (나)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행크스는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즉 행크스는 도덕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와 조건문의 일부로 사용된 경우 모두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동일하게 지닌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행크스는 단독으로 진술된 문장이 조건문의 일부로 사용된 때와 내용 차이가 없으며, 전건 긍정식의 두 전제에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의 내용은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

15. 생략된 내용 추론(정답: ①)

(가)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는 도덕 문장이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한다는 견해이다. 한편 (나)의 1문단에 따르면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은 전건 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이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생기는 문제이다. 이에 따르면 ‘P이면 Q이다. P이다. 그러므로 Q이다.’와 같은 전건 긍정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지만, 에이어의 윤리적 견해에 따르면 해당 문장의 두 P가 서로 다른 내용을 지니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전건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된다는 점을 들어 에이어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나)의 1문단에 따르면 ㉠에 대응하여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에이어의 견해가 수용되려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전건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에 따르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다면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는 수용될 수 없다.

③ (나)의 1문단에 따르면 ㉠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건 긍정식의 전제가 되는 두 문장 ‘P이면 Q이다’와 ‘P이다.’에 나타난 P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은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려면 두 전제 모두에 나타난 문장의 내용이 일치해야 함에 기초한다.

④ (나)의 1문단에 따르면 ㉠은 ‘굴은 맛있다.’와 같은 개인의 선호를 표현하는 문장도, ‘굴은 맛있다면 굴은 비싸다.’와 같이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굴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게 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므로 ㉠은 도덕 문장뿐 아니라 개인적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

⑤ (나)의 1문단에 따르면 ㉠은 전건 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이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생기는 문제이다. 한편 (나)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도덕 문장을 판단적이라고 보는 이론에서는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으며,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판단적으로 보는 이론에 따르면 ㉠은 애당초 발생하지 않는다.

16. 다른 견해와의 비교(정답: ㉠)

(가)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은 에이어에 의해 제기된다. 그는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라고 말하며 감정을 표출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보기>는 ‘자선은 좋다.’ 또는 ‘폭력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은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을 확장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고 주장한다. 즉 <보기>는 도덕 문장에 대해 에이어와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

을 설명하므로,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② (나)의 1문단에 따르면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의 형식을 취하는 논증인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은 두 전제의 참과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 이러한 견해를 수용했을 때, ‘전건 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란 두 전제의 참이 결론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절은 나쁘다.’와 같이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을 포함한 전건 긍정식은 타당하지 않다. 하지만 <보기>는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을 포함한 조건문이 논증으로 쓰일 때, 태도 사이의 일관성을 고려해 논증의 타당성을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를 포함한 논증은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논증에 나타난 태도 사이의 관계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한다.

③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전통적인 윤리학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으려 하며, 이를 통해 전통적인 윤리학에서는 도덕 문장의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다고 여긴다. 반면 <보기>는 도덕 문장은 단지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므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없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도덕 문장은 찬성과 반대라는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한다.

④ (나)의 1문단에 따르면 ‘굴은 맛있다.’는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다. 마찬가지로 <보기>에 따르면 ‘자선은 좋다.’는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다. 즉 ‘굴은 맛있다.’가 굴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는 주장은, ‘자선은 좋다.’가 자선에 대한 화자의 찬성을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⑤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에이어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다. 마찬가지로 <보기>는 도덕 문장이 나타내는 주관적 태도들에는 참과 거짓이 없다고 설명한다. 즉 ‘도둑질은 나쁘다.’가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므로 진리 적합성이 없다는 주장은, 폭력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 참, 거짓일 수 없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17.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정답: ㉔)

㉑의 ‘내놓다’는 ‘생각이나 의견을 제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㉑는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이게 하지’라는 의미를 지닌 ‘제시하지’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㉑ ㉑의 ‘찾다’는 ‘모르는 것을 알아내고 밝혀내려고 애쓰다. 또는 그것을 알아내고 밝혀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㉑를 ‘구석구석 뒤지어 찾는’이라는 의미를 지닌 ‘수색하는’으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㉑ ㉑의 ‘펼치다’는 ‘생각 따위를 전개하거나 발전시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㉑를 ‘전하여 널리 퍼뜨리다.’라는 의미를 지닌 ‘전파하다’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㉑ ㉑의 ‘불러일으키다’는 ‘어떤 마음, 행동, 상태를 일어나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㉑를 ‘감정 따위가 밖으로 드러나 해소되거나 분위기 따위가 한껏 드러나는’이라는 의미를 지닌 ‘발산하는’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㉑ ㉑의 ‘열다’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㉑를 ‘어떤 사실이나 사물, 내용 따위를 여러 사람에게 널리 내놓아’라는 의미를 지닌 ‘공개하여’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8 ~ 21] (고전소설)

작자 미상, 「이대봉전」(연계: 수능특강 문학 139쪽)

18. 배경의 기능 파악(정답: ㉑)

윗글에서 이대봉은 유배지로 가던 길에 ‘뺏사람들이 달려들어 아버를 결박하여 물에 던진 사건을 겪어’ ‘거의 죽게 되었’으나 ‘서해 용왕의 구함을 입어’ ㉑에 가 ‘팔 년을 의탁’하다가, 아버지의 ‘유골’과 어머니를 찾아 ‘중원’으로 돌아갔다. 따라서 ㉑은 이대봉이 중원으로 향하기 전에 머물던 공간이다.

[오답풀이]

㉑ ㉑은 이대봉이 ‘부친을 모시고’ 떠나온 공간일 뿐, 이릉의 영혼을 만나 갑옷과 칼을 얻은 공간이 아니다. 윗글에서 이대봉은 ‘농서’에서 이릉의 영혼을 만나 갑옷을 얻었고, ‘화용도’에서 ‘관 공의 영혼을 만나 칼을 얻었다’.

㉑ ㉑은 흉노가 ‘천자의 자리를 뺏’한 곳이다. 그러나 ‘분심을 이기지 못’한 이대봉이 흉노를 차단한 공간은 ‘금릉’과 ‘서릉도’이다.

㉑ ㉑은 간신 왕희의 모함을 입어 ‘이 시랑 부자’가

유배 간 공간이다.

㉑ ㉑은 ‘어가’ 흉노를 피해 간 곳일 뿐, 동돌수가 이대봉을 피해 달아난 공간이 아니다. 윗글에서 이대봉은 ‘금릉’에서 동돌수를 ‘베어’ 성상의 급하심을 구하’였다.

19.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정답: ㉑)

윗글에서 장 소저는 부친이 ‘대인의 억울함과 소첩의 앞길이 그릇됨을’ 병이 될 정도로 ‘원통히 여’기다 ‘세상을 버’렸다고 진술한다. 이때, ‘대인의 억울함’은 모함으로 인해 유배 가게 된 ‘이 시랑’의 처지를 나타내고, ‘소첩의 앞길이 그릇됨’은 장 소저가 이대봉과 혼인하지 못하게 된 것, 곧 혼약이 어그러진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 소저가 부친이 ‘세상을 버’린 까닭을 이 시랑의 죽음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고 여겼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㉑ 윗글의 ‘제문’에서 장 소저가 ‘부친이 신기한 꿈을 꾸고는 대인과 진진지연을 깊이 맺’었다고 한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㉑ 윗글의 ‘제문’에서 장 소저가 ‘양가 시운이 불리하여’ ‘대인은 간신의 모해를 입’고 ‘부친’은 ‘세상을 버’리게 되었다고 한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㉑ 윗글의 ‘제문’에서 장 소저는 ‘간적 왕희가’ 자신의 ‘고독함을 업신여겨 혼인을 강제’하려 하여 ‘변복도주’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㉑ 윗글의 ‘장 소저의 상표’에 따르면 ‘삭발 승려’가 된 ‘시랑 이익의 처’를 만났음을 고하며, ‘비록 성혼행례’를 하지 못하였으나 자신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라고 하였다.

20. 소재의 기능 및 특징 파악(정답: ㉑)

㉑에서는 ‘소첩’, ‘첩’ 등의 표현을 통해 자신을 낮춤으로써 윗사람인 ‘시랑’에 대한 공손함을, ㉑에서는 ‘죄신’이라는 표현을 통해 ‘폐하’에 대한 공손함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㉑와 ㉑ 모두에서 글을 바치는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오답풀이]

㉑ ㉑는 장 소저가 ‘시랑의 영위 먼저 차린 후’ 읽은 ‘제문’이고, ㉑는 성상에게 이대봉이 올린 ‘표문’이다.

㉑ ㉑에서 장 소저는 이 시랑이 ‘수중고혼이 되신’ 것에 ‘참통’해하며 자신이 올린 ‘제문’과 ‘술을 ‘존령’이 ‘흠향’하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㉑는 상대의 원통함을 위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

편 ⑥에서 이대봉은 자신의 그간의 내력을 성상께 알려 성상이 왕희를 ‘엄형 국문하옵신 후 왕적을 내어 주시고’ 자신의 ‘죄를 다스려 주기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⑥는 상대에게 사건 경과를 알려 특별한 조치를 요청하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④ ①에서 장 소저는 ‘대인 부자가 형적이 없’는 것을 듣고 그들이 ‘수중고혼’이 되었다고 생각했으나 ⑥에서 이대봉은 ‘죽었던 아비’를 만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①에서 글을 바치는 사람이 오해했던 사건의 실상이 ⑥에서 드러나고 있다.

⑤ ①에서는 ‘장한림의 딸 애황’이 ‘이부 시랑 이 공영위 앞에 아’된다고 하였고, ⑥에서는 ‘죄신 이대봉’이 ‘한 장 표문을 황상 용담 하에 바’친다고 하였으므로, ①과 ⑥ 모두 글을 바치는 사람과 상대를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정답: ④)

<보기>에 따르면 현실계나 비현실계의 존재들 또한 주인공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조력한다. 뒷글에서 표류하던 이대봉이 천우신조로 무인절도에서 아버지 이 시랑과 재회한 것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와 기적처럼 재회한 데 따른 감격을 담은 표현일 뿐, 비현실계의 존재가 조력한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 또한, 이는 자신의 아버지와 재회한 것이므로 공적 활약과도 관계가 없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 따르면 「이대봉전」에서 주인공은 공적 가치와 사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공적 가치는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당위로 제시되며, 사적 목표는 가문의 일원으로서 그 사건 해결에 가담하는 동력이 된다. 뒷글에서 장애황이 혼약을 이루기 위해 대공을 세웠다고 한 것은, 사적 목표를 위해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드러내므로, 이를 통해 혼약이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뒷글에서 장애황이 난신 왕희를 ‘엄형 국문하’여 ‘국법을 밝’힌 다음 자신에게 ‘내어’ 달라고 한 것은, 성상이 난신의 죄를 다스리는 공적 권위를 존중하되 자신이 왕희를 처단하여 ‘원수’를 갚는 사적 목표도 실현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공적 활약을 통해 공적 가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면에 사적 목표의 추구를 배치하는 구도는 사적 목표의 추구를 정당화한다는 <보기>의 설명과 관련된다.

③ <보기>에 따르면 「이대봉전」에서 공적 가치는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당위로 제시된다. 뒷

글에서 흥노가 침입하여 ‘천자의 자리를 범하여 황성을 함몰하고 어가가 금릉으로 행’한 소식을 듣고 이대봉은 ‘분심을 이기지 못’해 ‘천 리를 달려와’ 출전하는데, 이는 이대봉이 ‘충’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당위성을 확보했음을 보여 준다.

⑤ <보기>에 따르면 공적 가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면에 사적 목표의 추구를 배치하는 구도는 영웅소설이 지향하는 ‘충’이라는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적 목표의 추구를 정당화한다. 이대봉이 자신이 ‘흥노를 베’었던 공을 드러낸 후 성상에게 왕희가 자신의 ‘원수’임을 이야기하여 성상이 ‘엄형 국문’하기를 요구한 것에서, 충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원수를 갚는 사적 목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인물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다.

[22 ~ 26] (고전시가 / 고전수필)

(가) 작자 미상, 「우부가」(연계: 수능특강 문학 71쪽)

(나) 성현, 「타농설」(비연계 작품)

2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정답: ①)

(가)는 ‘공생원’이 한 일들을 열거하여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며 요행을 바라고 부정한 일들을 저지르는 이들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한편 (나)는 ‘부지런한 농부’와 ‘게으른 농부’를 대조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지런한 태도로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가)는 ‘기인취물 하자 하니 두 번째는 아니 속고 / 공납 범용 하자 하니 일가 중에 부자 없고’, ‘아낙은 천정살이 자식은 머슴살이’, ‘일가에게 인심 잃고 친구에게 손가락질’ 등에서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공생원’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일관적으로 보여 주고 있을 뿐, 인물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나)는 ‘김을 매도 죽을 것이고 김을 매지 않아도 죽을 것이다.’, ‘한때의 편안함을~지낼 수 있게 되었다.’ 등에서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인물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드러내지 않았다.

③ (가)와 (나)는 모두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지 않았다.

④ (가)는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지 않았다. 한편 (나)는 ‘봄’, ‘여름’, ‘가을’ 등의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여 ‘김매기’를 하고 ‘곡식’이 익어 가는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⑤ (가)는 ‘재상가에 청질하다~핀잔 듣고 자빠지고’ 등에서 ‘콩생원’의 행동을 묘사하여 그를 풍자하고 있을 뿐, 해학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 간의 우호적 관계를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나)는 해학적 표현을 활용하지 않았다.

23. 시어의 의미와 기능 파악(정답: ②)

㉠은 콩생원이 ‘행로상’에 ‘흠어 놓’은 대상으로, 콩생원의 책임감 없는 면모를 강조할 뿐, 재물을 모은 콩생원이 함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싶은 대상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은 콩생원이 요행을 바라며 ‘이장도 자주 하며 이사도 힘을 쓰’게 하는 대상이므로, 집터나 밋자리를 통해 길운을 바라는 콩생원이 관심을 보이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은 ‘뜯재물을 경영하’려는 콩생원이 ‘재상가’에 부탁하여 그 힘을 빌리고자 함을 나타낸 것으로, 재물을 경영하여 부를 증식하려는 콩생원이 권력자의 권세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은 ‘가대 흥정’에 관여하여 ‘구문’을 받으려던 콩생원이 당한 일로, 집이나 땅을 중개하여 이문을 취하려는 콩생원이 흥정 과정에서 겪은 부정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은 ‘부자나 후’려 돈을 얻으려는 콩생원이 부자를 ‘피’기 위해 하려는 일로, 부자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콩생원이 부자를 피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4. 작품의 내용 파악(정답: ⑤)

⑥는 ‘만일 비가 오지 않으면 이것 모두 무익하게 될 것’이므로 ‘김을 매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은 ‘부귀는 운명에 달려 있으니 역시 학문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⑥는 김매기를 하여도 작물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은 학문에 힘을 쏟아도 부귀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답풀이]

① ㉠은 ‘큰길가에 색주가며 노름판에 푼돈 떼기’를 하고 있으므로, 도박과 음주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은 ‘파산의 들판’에서 ‘목을 뺏뺏이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다.

② ㉠은 ‘팔자를 원망’하고 있으나 ‘제 아비 덕분에’로 돈천이나 가졌으므로, 부모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다. 한편 ㉢은 ‘공명에는 분수가 있’어 ‘학

문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 분수를 알아 자신의 배움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③ ㉠은 ‘혼인 중매 선채 돈에 창피당해 뺨 맞’고 있으나, 혼인을 중매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여 창피를 당한 것은 아니다. 한편 ㉢은 과거 시험에서 뜻을 이루지 못해 ‘스스로 낙심’하고 있을 뿐,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

④ ㉡은 가뭄에 김을 매지 않으며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보고 비웃’고 ‘들밥을 내가는 아녀자들을 보고 조롱’하고 있을 뿐, 다른 농부들의 조롱을 받지 않았다. 한편 ㉢은 ‘과거 시험장에 나아가서’ ‘뜻을 이루지 못’한 한때의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그동안 배운 것을 버’려 공명을 이루지 못한다.

25.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정답: ②)

(나)는 ‘열심히 일하여 얻고, 편안하게 놀다가 잃는 것’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반박은 제시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나)는 ‘부지런한 농부’의 말과 ‘게으른 농부’의 말을 인용하여 ‘큰 가뭄이 들’었다는 특정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나)는 글쓴이의 물음에 대한 ‘마을 노인’의 대답을 통해 ‘파산의 들판’에서 ‘어떤 농부는 목을 뺏뺏이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또 어떤 농부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④ (나)는 ‘이 글을 지어 그들을 깨우치는 바이다’를 통해 ‘선비들’에게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의도를 드러내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⑤ (나)에서 글쓴이는 ‘가뭄’이 들어도 ‘김매기를 그치지’ 않은 ‘부지런한 농부’와 ‘가뭄’이 들자 ‘물러나 앉아 천명을 기다’린 ‘게으른 농부’가 ‘가을걷이할 무렵’에 서로 다른 결과를 얻게 된 일을 관찰한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논의의 대상을 ‘시서를 공부하여 벼슬길에 나아가기를 도모하는 사 람들’의 상황으로 확장하고 있다.

2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정답: ⑤)

(가)의 ‘일가’가 ‘친구’에게서 소외당한 콩생원의 말로는, ‘행로상에 처자식을 흠어 놓’고 ‘술 한 잔 밥 한 술을 친구 대접’ 하지 않은 콩생원이 결국 그들로부터 소외당했음을 보여 주므로, 무책임한 삶에 대한 경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책

임감 없는 삶을 사는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그 삶이 평가된다는 <보기>의 내용과 관련된다. 한편 (나)의 ‘큰 일을 하면서 부지런하’기를 추구하는 것은, ‘그 이로움이 적’은 ‘농사를 지어 입과 배를 채우는 것’과 달리 ‘그 이로움이’ 큰 ‘학문을 하여 명성을 취하는 것’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게으른 농부에 대한 권면이 아니라 학문을 하는 선비에 대한 권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가)에서는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며 요행을 바라는 태도에 대한 경계가 나타난다는 <보기>의 설명과 관련된다.

[오답풀이]

① (가)의 ‘공것’은 힘이나 돈을 들이지 않고 얻은 물건을 뜻하고, ‘뜬재물’은 뜻하지 않은 기회에 우연히 얻은 재물을 의미하므로, 이는 모두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태도를 알 수 있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에서는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며 요행을 바라는 태도에 대한 경계가 나타난다는 <보기>의 설명과 관련된다.

② (나)의 ‘비가 내리지 않’아 ‘김을 땀 수가 없’는 것은, ‘큰 가뭄이’ 들어 ‘들판에 있는 풀은 하나같이 누렇게 말랐고, 논밭의 곡식도 모두 시’든 상태와 관계되므로, 농부들이 농경에 부적합한 환경이라는 문제 상황에 당면하게 된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나)에서는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는 자세에 대한 권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기>의 설명과 관련된다.

③ (가)의 ‘공납’을 유용하려는 것에서는 국고를 허락 없이 마음대로 쓰려는 시도이므로, 이익을 위해 규범을 무시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에서는 당대 규범에서 벗어나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며 요행을 바라는 태도에 대한 경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보기>의 설명과 관련된다. 한편 (나)의 ‘그냥 쉬는 것이 나을 것’에서는, ‘만일 비가 오지 않으면’ 김매기를 하는 수고로움이 ‘모두 무익하게 될 것’이라고 속단하는 ‘게으른 농부’의 태도가 드러나므로, 이는 불행한 결과를 예단하는 운명론적 태도와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나)에서는 운명론적 태도에 벗어나 삶의 주체로서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는 자세에 대한 권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기>의 설명과 관련된다.

④ (가)의 ‘돈천이나 가졌더니’, ‘친구 대접 하였던가’에서는 평생원이 ‘아비의 덕분’으로 큰 재산을 지녔지만 ‘술 한 잔 밥 한 술’을 사지 않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재물을 베푸는데 인색한 물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에서는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며 요행을 바라는 태도에 대한 경계가 나타난다는 <보기>의 설명과 관련된다. 한편 (나)의 ‘풀 뽑기를 쉬지 아니하여’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힘을 다하여 곡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드러나므로,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나)에서는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는 자세에 대한 권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기>의 설명과 관련된다.

[27 ~ 30] (현대소설)

임철우, 「아버지의 땅」(연계: 수능특강 문학 292쪽)

27. 서술상 특징 파악(정답: ㉔)

㉔에서는 서술의 주체를 알 수 있는 표지인 ‘나’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초겨울의 야산’, ‘사위’를 지각하며 ‘현기증이 일었다’고 한 주체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는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

[오답풀이]

㉑ ㉑에서는 자신이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되어’ 갔다는 ‘나’의 지각 내용을 서술자인 ‘나’가 서술하고 있으므로, 인물과 서술자가 겹쳐 있다고 할 수 있다.

㉓ ㉓에서는 ‘나’가 지각하는 대상인 ‘그것’을 주어로 서술함으로써 ‘나’의 지각 대상인 ‘그 사내’, 곧 ‘아버지’를 부각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㉔ ㉔은 인용 부호 없이 서술되었으나 ‘어머니가 말’한 것이므로, 이를 통해 인물의 목소리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㉕ ㉕에서는 지각의 주체가 ‘나’인지 ‘아버지’인지 드러나지 않아서 누가 ‘시야가 부엌에 흐려’진 것인지 모호한 상황이 빚어진다.

28. 소재의 기능 파악(정답: ㉓)

윗글에서 어머니의 ㉓는 ‘나’에게 ‘충격으로 깊이 남겨’져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죄를 ‘함께 나누어 지니고 만 느낌’을 가지게 했으므로, ㉓는 이야기의 긴장감이 형성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㉕는 ‘유해를’ 다시 묻어 준 일을 ‘천당’갈 만한 ‘좋은 일’로 여기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유해’에 ‘아버지’를 투영한 ‘나’가 미움에서 연민으로 그 심리적 긴장감이 완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따라서 ㉕는 이야기의 긴장감이 완화됨을 드러내는 표지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나’는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이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이는 전쟁으로 인한 상처라는 주제 의식과 관련되지만 ㉠이 이야기의 심화된 주제를 구현하는 제재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는 ‘유해를’ 다시 묻어 준 다음 ‘작은 술판’을 벌이며 ‘다른 녀석들’이 ‘낄낄대며’ 보태는 말로, 이는 아버지에게 대한 용서로 이어지므로 이야기의 주제를 가늠하도록 하는 단서라고 볼 수도 있다.

② 윗글에서 ‘나’는 ㉠로 인해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으므로, 이는 사건이 이야기를 절정에 치닫도록 하는 추진력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한편 ㉡는 ‘다른 녀석들’이 ‘낄낄대며’ 보태는 말일 뿐, 이야기를 결말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④ 윗글에서 ‘나’는 ㉠로 인해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으므로, 이야기의 위기감이 시작되는 것일 뿐, 이야기의 위기감이 해소된 종착점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한편 ㉡는 ‘유해를’ 다시 묻어 준 다음 ‘작은 술판’을 벌이며 나온 말이므로, 이야기의 긴장감이 완화된 것일 뿐, 이야기의 위기감이 고조된 정점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⑤ ㉠로 인해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며 ‘그때부터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이 따라다녔으므로, ㉠은 이야기를 일으키는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는 ‘다른 녀석들’이 ‘낄낄대며’ 보태는 말일 뿐, 이야기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는 귀결점이라고 할 수 없다.

29. 소재의 기능 파악(정답: ㉣)

아버지가 ㉠를 피워 내며 ‘홀로 잠들어 있’는 상황은 아버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현실이 될 경우 ㉡에 투영되어 있는 아버지가 ‘때가 되면 돌아’을 것이라는 염원은 실현 가능성이 사라진다.

[오답풀이]

① ㉡는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어머니의 염원이 투영된 것이고, ㉠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 떠올리며 언급하는 것일 뿐, ㉡와 ㉠이 인물이 처한 영향력에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② ㉡는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어머니의 염원이 투영된 것이고, ㉠은 ‘나’가 아버지의 죽음 이후 상황을 상상하는 것일 뿐, ㉡와 ㉠은 모두 현재의 시간과 공간에 관여되면서 이야기의 배경에 실감을

더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의 상황과 관련된 것일 뿐, 인물이 원하는 바를 집약한 결과라고는 할 수 없다. 한편 ㉡는 아버지의 귀환을 바라는 어머니의 소망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귀환을 바라며 언급하는 것이므로, 관념적 의미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인물이 이념에 편향되어 있음이 알려진다고는 할 수 없다. 한편 ㉠은 ‘나’가 아버지의 죽음 이후 상황을 떠올리며 언급하는 것일 뿐, 관념적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인물이 이념에 편향되어 있음이 알려진다고 할 수 없다.

3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정답: ㉢)

<보기>에 따르면 ‘기억 재응고화’는 마음의 상처로 남은 기억을 재구성하여 다른 의미와 가치에 대응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 기억으로 빚어진 심리적 불안정에 대응할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원리이다. 윗글의 ‘줄 묶음’을 ‘내던지’는 ‘노인’의 행위와 ‘물 사발’을 올리는 ‘어머니’의 행위가 이어지며 제시되는 부분에서는 노인의 행위로 인해 자신의 기억 속에 있던 어머니의 행위가 ‘까닭’을 모른 채 ‘나’에게 연상되는 것일 뿐, ‘나’의 기억을 재응고화하기 위한 ‘노인’과 ‘어머니’의 노력으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 따르면 ‘기억 재응고화’는 마음의 상처로 남은 기억을 재구성하여 다른 의미와 가치에 대응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 기억으로 빚어진 심리적 불안정에 대응할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원리이다. 윗글의 ‘낙인’과도 같은 유년의 기억을 성인이 되어서도 떨쳐 버리지 못했다는 고백에서는, 기억을 ‘가슴에 지닌 채’로 응고된 기억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았던 ‘나’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② <보기>에 따르면 ‘기억 재응고화’는 마음의 상처로 남은 기억을 재구성하여 다른 의미와 가치에 대응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 기억으로 빚어진 심리적 불안정에 대응할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원리이다. 윗글에서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을 유발한 동인을 추적해 보면, ‘아버지’에 관한 ‘나’의 기억이 ‘벗어날 수가 없’는 마음의 상처로 남아 심리적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고된 기억을 돌이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편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윗글의

‘모래밭’에서 ‘어머니’ 형상과 ‘사내의 환영’이 어우러지는 장면은, ‘저주처럼’ 느껴지던 ‘아버지’의 존재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한 사내’로 인식하게 되는 ‘나’의 상태를 나타내므로, 이는 부정적으로 굳어져 있던 기억이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⑤ <보기>에 따르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고된 기억을 돌이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편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뒷글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유해’에 대응되면서 ‘나’의 정서적 반응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면 ‘나’가 부정적인 기억을 재구성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회복해 가는 경위를 엿볼 수 있다.

[31 ~ 34] (현대시)

(가) 이기철, 「청산행」(연계: 수능특강 문학 265쪽)

(나) 김현승, 「사실과 관습: 고독 이후」(비연계 작품)

31. 표현상의 특징 파악(정답: ⑤)

(가)는 ‘여울물’과 같은 자연물에 화자의 정서를 투영하고 있다. 한편 (나)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주체 의식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자연물에 화자의 정서를 투영하지 않았다.

[오답풀이]

- ① (가)는 ‘맨살 비비는 돌들’, ‘이 세상을 앓아 보지 않은 것들’에서 인격화한 대상을 통해 자연에 머물고자 하는 화자의 심리를 시사하고 있다.
- ② (나)는 ‘~ㄹ 뿐’을 활용하여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주체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나)는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한편 (가)는 ‘청산’에 와서 포착한 ‘인가’, ‘여울물’ 등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에는 화자가 명시되지 않은 것과는 달리, (나)는 ‘나’라는 화자를 거듭 명시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32. 시어의 의미 및 기능 파악(정답: ④)

㉓는 ‘서른 번 다져 두’었던 다짐을 ‘서른 번 포기했던’ 경험들을 나타내므로, 내면의 갈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㉔는 ‘고즈넉한 저녁’에 ‘차를 마’서 온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담담’하게 ‘사실’임을 인지하는 화자의 태도를 내포하므로, 내면의 평정함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㉓는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

으로, 속세에 대한 화자의 미련을 나타낼 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다.

② ㉔는 ‘차를 마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화자의 판단으로, ‘호올로’는 ‘누구의 시킴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달갑’게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부각하는 것일 뿐, 행위 주체의 사회적 고립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③ ㉓는 ‘서쪽 마을’을 바라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실과 자연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 줄 뿐, 피안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지 않는다. 한편 ㉔는 일과를 마친 ‘저녁’과 관련되어 있으나 이는 ‘고즈넉한 저녁’에 ‘누구의 시킴’도 없이 자발적으로 ‘차를 마시는’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하는 진술일 뿐, 안식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지 않는다.

⑤ ㉓는 속세를 떠나 자연에 오고자 했으나 ‘포기했던’ 경험들에 대한 진술일 뿐, ‘인가’를 ‘내려다보’아 촉발된 것이 아니다. 한편 ㉔는 화자의 ‘차를 마시는’ 행동이 반복되어 왔음을 나타내는데, 이때 ‘달갑고’, ‘좋아하는’은 ㉔가 화자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나타낼 뿐, 자기 위안을 위한 행동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33. 시어의 의미 및 기능 파악(정답: ③)

㉓는 ‘맨살’을 드러낸 ‘돌들’이 부대끼는 형상으로, ‘이 세상을 앓아 보지 않은 것들’의 모습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는 세파에 시달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다.

[오답풀이]

- ① ㉓는 ‘산길’이 이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② ㉔는 ‘저녁 연기’의 형상으로 세상에서 ‘고민’하는 처지에 있는 ‘한 가정’의 처지를 시각화한 표현이다.
- ④ ㉔는 ‘차를 마시는 것’이 화자가 ‘달갑고 가장 즐거워’ 하는 주체적 행위임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⑤ ㉔는 ‘나는 나일 뿐’이라고 단정 짓게 된 화자의 현재 인식을 부각하는 표현이므로, ‘나’에 대한 현재의 인식이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정답: ③)

<보기>에 따르면 (가)는 자연에 들어온 화자가 점차 자연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과 심리 상태를 그리고 있으며, (나)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가)의

‘발을 푸니’ ‘잘 보인다’는 것은, ‘청산’에 들어온 화자가 자연에 익숙해지면서 잘 보이지 않던 ‘산길’도 볼 수 있게 된 상황을 드러내므로, 화자가 자연에 친숙해지는 심리 상태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나)의 ‘앞으로 남은 십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는, 자신이 경험해 보지 않은 시간과는 무관하게 ‘좋아하는 차를 마시는’ ‘나’가 지금 현존하는 ‘나’라는 인식을 드러내는 표현이므로, 이는 절대자에 대해 회의하고 현실에 엄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 따르면 (가)는 세속의 일상을 떠나 자연에 들어온 화자가 점차 자연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가)의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는 것은, 세속에 두고 온 대상들에 대한 화자의 미련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자연에 온전히 동화되지 못하는 화자의 심리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보기>에 따르면 (나)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나)의 ‘차를 마시는’ 행위가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으로 확장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향기’와 달리 ‘사실’로 판단할 수 있는 현재의 행위를 통해 자신을 파악하듯 ‘모든 것’에 대한 판단도 ‘사실’에 근거하겠다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경험적 사실을 ‘나’와 모든 존재에 대한 인식의 유일한 근거로 삼겠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가)는 자연에 들어온 화자가 점차 자연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과 심리 상태를 그리고 있으며, (나)는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하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가)의 ‘여울물’과 ‘때까치들’에는, 자연에 들어와 ‘길을 놓’치거나 ‘들 가운데 순결해진다’고 느끼는 화자의 심리가 투사되어 있다. 한편 (나)의 ‘참새’의 떨어짐이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는, 자연 현상에 절대자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는 의식에 대한 부정을 드러내므로, 절대자와의 관계에 대한 회의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보기>에 따르면 (가)는 자연에 들어온 화자가 점차 자연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과 심리 상태를 그리고 있으며, (나)는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하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가)의 ‘이 세상을 앎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는,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자연에 묻혀 지내고 싶은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므로, 자연에 동화되려는 태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나)의 ‘물은 물일 뿐’, 실존하는 ‘물’에 대한 ‘사실’만을 진술한 것이므로, 경험적 사실로만 대상을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선택 과목(화법과 작문) 해설

[35 ~ 37] (화법) 「김 양식 방법」

35. 말하기 전략 평가(정답: ㉓)

발표자는 도입부에서 ‘여러분, 어제 급식에 나온 김 자반 맛있게 드셨나요?’라는 질문을 통해 화제인 ‘김’과 관련한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여 청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오답풀이]

① 발표자는 마지막 문단에서 김이 ‘검은 반도체라 불리며 수산 식품 수출 1위, 연간 수출액 1조 원을 달성’하였다고 언급한 뒤 ‘우리 김의 미래를 함께 응원해 주세요.’라며 청중의 실천을 촉구하고 있으나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② 발표자가 청중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발표 중간에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발표자는 2문단에서 ‘김이 햇빛과 공기에 노출되었을 때 맛과 품질이 좋아지는 이유를 ‘오른손을 내밀며’ 설명하고 있으나,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발표 순서를 안내하고 있지는 않다.

⑤ 발표자는 2문단에서 ‘김이 햇빛과 공기에 노출되면 왜 맛과 품질이 좋아질까요?’라고 질문을 던진 뒤 ‘그것은 바로~일어나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하며 김이 햇빛과 공기에 노출되면 맛과 품질이 좋아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36. 매체 자료 활용의 적절성(정답: ㉔)

[자료 2]는 ‘뜸에 김발을 매달아 수면 아래 잠기게 하여’ 김을 양식하는 부류식 양식 방법을 보여 주는 자료로, 발표자는 ㉔에서 이를 활용하여 부류식 양식 방법은 ‘김이 바닷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김의 생장이 빨라’ 지주식 양식 방법과 비교했을 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자료 1]은 ‘수심이 낮은 가까운 바다에 김발을 매단 버팀목을 세워 김을 양식하는’ 지주식 양식 방

법의 모습을 보여 주는 그림이다. 발표자는 ㉠에서 이를 활용하여 ‘김은 바다의 양분을 먹고 자라야 하기 때문에’ 지주식 양식 방법으로 김을 양식할 경우 ‘김의 생장 속도가 더디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으나, 김발 뒤집기로 바다의 양분을 김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발표의 3문단에서는 ‘김발 뒤집기’가 갯병을 방지하기 위해 ‘김을 햇빛과 공기 중에 노출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을 뿐, 김발 뒤집기로 바다의 양분을 김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② 발표자는 ㉡에서 [자료 1]이 아닌 [자료 2]를 활용하여 부류식 양식 방법은 ‘김이 햇빛과 공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갯병에 취약한 면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③ 발표자는 ㉢에서 [자료 2]가 아닌 [자료 1]을 활용하여 지주식 양식 방법으로 ‘김이 햇빛과 공기에 노출되면’ ‘광합성이 활발해지고 살균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맛과 품질이 좋은 김을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발표자는 ㉤에 [자료 1]을, ㉥에 [자료 2]를 활용하여 ‘수심이 낮은 가까운 바다’에서 김을 양식하는 지주식 양식 방법과, ‘좀 더 먼 바다에서’ 김을 양식하는 부류식 양식 방법을 각각 설명하고 있다. 즉 발표자는 지주식 양식 방법과 부류식 양식 방법을 김발의 유무가 아닌 육지에서 김을 양식하는 바다까지의 거리에 따라 구별하고 있다.

37. 반응의 적절성 평가(정답: ⑤)

‘학생 2’는 ‘외국인들이 김을 사려고 줄을 서 있는 사진 덕분에 김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어.’라며 발표자가 발표의 도입부에서 ‘김을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 준 것의 효과를 언급하고 ‘그런데 수산 식품~이라는 내용이 정확할까?’라며 발표에 제시된 정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 발표에서 제공하지 않은 정보를 추론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학생 3’은 ‘해조류인 김도 양식한다는 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이라며 발표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자신의 기존 지식을 수정하고, ‘다른 해조류도~정보를 찾아봐야겠어.’라며 발표에 언급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계획하고 있을 뿐,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에서 제공하지 않은 정보를 추론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학생 1’은 ‘김이 광합성을 하면 왜 맛과 품질이

좋아지는지 궁금’하다고 언급한 뒤 ‘그 내용이 발표에 포함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자신이 알고 싶은 정보가 발표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아쉬워하고 있다.

② ‘학생 2’는 ‘그런데 수산 식품 수출 1위, 연간 수출액 1조 원이라는 내용이 정확할까?’라며 발표자가 마지막 문단에서 제시한 정보가 믿을 만한지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③ ‘학생 3’은 ‘다른 해조류도 양식한다면 김 양식과 어떻게 다른지 정보를 찾아봐야겠’다며 발표의 내용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려 하고 있다.

④ ‘학생 1’은 ‘김이 햇빛과 공기에 노출되면’ ‘광합성이 활발해’진다는 2문단의 내용과 관련하여 ‘김이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김도 광합성을 하는구나.’라며 자신이 평소 알고 있던 바를 수정하고 있다. ‘학생 3’은 또한 ‘해조류인 김도 양식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언급한 뒤 ‘광어, 우럭 같은 어류만 양식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이라며 자신이 평소에 알고 있던 바를 수정하고 있다.

[38 ~ 42] (화법+작문) 「도서관 전파 식별 시스템」

38. 대화 내용 이해(정답: ①)

(가)에서 ‘부원 1’의 세 번째 발화와 네 번째 발화를 통해 전파 식별 시스템으로 인해 장서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으며, 교과 관련성이 높은 책을 눈에 잘 띄는 서가에 배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의 대화 내용을 고려하면 도서관부원들이 전파 식별 시스템의 도입을 건의할 때 전파 식별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원활한 장서 관리로 인해 학생들이 학습과 관련된 도서를 쉽게 찾을 수 있어 과제 수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가)에서는 ‘부원 1’의 여섯 번째 발화를 통해 학생증 없이 도서를 대출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다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뿐, 학생증 없이 도서를 대출할 때의 번거로움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가)에서는 ‘부원 2’의 두 번째 발화를 통해 전파 식별 시스템을 활용한 자가 대출 반납기를 사용하게 되어 점심시간 말고도 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게 되었다는 효과를 알 수 있을 뿐, 점심시간의 도서관 개방으로 인한 대기 시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④ (가)에서는 ‘부원 1’의 네 번째 발화를 통해 전과 식별 시스템을 활용한 장서 점검기를 통해 교과와 관련성이 높거나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책을 눈에 잘 띄는 서가에 배치할 수 있었다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뿐, 동선을 고려한 서가와 책상의 배치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⑤ (가)의 ‘부원 1’은 다섯 번째 발화에서 도서관을 새로 단장했다는 소식이 학교 누리집에 안내되었다고 언급하였으나, 이는 전과 식별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는 관련이 없으며, (가)에서는 전과 식별 시스템의 도입으로 도서관 소식을 전하는 학교 누리집 게시판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없다.

39. 대화 전략의 적절성(정답: ⑤)

[B]에서 ‘부원 1’이 ‘달라진 도서관에 대해 소개하는 안내문을 써서 학급 게시판에 붙여 두자’는 ‘부원 2’의 발화를 듣고 ‘그러니까 안내문으로~답자는 말이지?’라고 언급한 것을 ‘부원 2’의 발화를 재진술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학교에서 새롭게 도서관을 단장한 것을 누리집에 안내했지만 ‘무엇이 달라졌는지 자세한 내용은 없’었다며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을 뿐, 새로운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A]에서 ‘부원 1’은 도서관에 설치한 전과 식별 시스템에 대해 ‘학생들의 반응이 좋은 것 같’다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며 ‘그렇지 않니?’라는 질문을 통해 부원들이 생각이 자신과 같은지 확인하고 있다.

② [A]에서 ‘부원 2’는 ‘맞아.’라며 앞선 전과 식별 시스템에 대한 학생들이 반응이 좋다는 ‘부원 1’의 발화를 긍정한 뒤, ‘반 친구들이~많이 하더라.’라며 그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③ [B]에서 ‘부원 3’은 ‘아직 달라진 도서관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며 자신이 인식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어때?’라며 문제 상황을 해결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④ [B]에서 ‘부원 2’는 ‘달라진 도서관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부원 3’의 제안을 듣고 ‘달라진 도서관에 대해 소개하는 안내문을 써서 학급 게시판에 붙’이자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부원들에게 함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40. 글쓰기 내용 생성(정답: ④)

(가)의 ㉔에는 ‘대출하지 않은 책을 도서관 밖으로

들고 나가면 경보음이 울린다는 설명’을 안내문에 넣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나)의 ‘도서 분실 방지 장치 작동’에서는 도서관 출입구의 ‘도서 분실 방지 장치’로 인해 ‘대출 절차 없이 도서관 밖으로 책을 들고 나가면 경보음이 울’린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보음이 울렸을 때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가)의 ㉑에서는 전과 식별 시스템의 도입 전에는 대출이나 반납을 할 때 줄을 길게 서며 시간이 많이 걸렸던 반면 지금은 전과 식별 시스템의 도입으로 ‘여러 권을 동시에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나)의 ‘수월해진 대출·반납’에서는 ‘한 번에 여러 권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길게 줄서는 일 없이 대출·반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② (가)의 ㉒에는 장서 점검기로 인해 제자리에 있지 않은 책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책을 찾기 쉬워졌다는 이점이 언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 도서 배치’에서는 ‘도서관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도서를 배치’하였으며, 이전과는 달리 지금은 도서가 정리되어 ‘원하는 도서를 바로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③ (가)의 ㉓에는 자가 대출 반납기를 이용하여 학생이 직접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나)의 ‘대출 가능 시간 확대’에서는 ‘과거에는 도서부원이 있는 점심시간에만 대출이 가능했’다는 내용과 함께 지금은 ‘도서 부원이 없어’ ‘직접 도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⑤ (가)의 ㉔에는 도서관 안내문에 ‘우리가 진행하는 도서관 행사를 소개’하자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나)의 ‘새 단장 기념 행사’에서는 ‘도서관의 새 단장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였’으며, 이 행사에는 ‘추천 도서 소개, 도서 속 보물찾기 등이 있’다며 행사의 종류를 소개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41. 글쓰기 내용 조직(정답: ⑤)

‘자가 대출 반납기 이용 방법’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한 ‘이용 편의성을 높인 도서 배치’와 달리, ‘자가 대출 반납기에 책들을 올리고 학생증을 인식시’키거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도서 목록 확인’ 후 ‘대출 또는

반납 버튼을 누르고' 완료가 되면 확인증을 받는 자가 대출 반납기의 이용 절차를 차례대로 제시하였다.

[오답풀이]

① '수월해진 대출·반납'은 '길게 줄서는 일 없이 대출·반납이 가능'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을 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서를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하지는 않았다.

② '이용 편의성을 높인 도서 배치'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하였을 뿐, 과거와 현재의 공통점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③ '대출 가능 시간 확대'에서 과거에 도서관원이 있던 점심시간에만 대출이 가능했다는 문제와 지금은 도서관원이 없어도, 점심시간이 아닌 때에도 직접 도서 대출이 가능해졌다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월해진 대출·반납'에서는 길게 줄서는 일 없이 대출·반납이 가능'한 이유를 언급하였을 뿐,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④ '도서 분실 방지 장치 작동'에서 '도서관 출입구에 도서 분실 방지 장치가 작동 중'이므로 '대출 절차 없이 도서관 밖으로 책을 들고 나가면 경보음이 울린다'고 설명한 것을 현상의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새 단장 기념 행사'에서는 다양한 행사의 예시를 들어 내용을 조직하고 있을 뿐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42. 글쓰기 내용 점검(정답: ②)

(나)의 도입부에는 '전과 식별 시스템 도입으로 달라진 우리 학교 도서관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며 안내문의 목적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안내문을 쓴 목적을 글의 처음 부분에 기술하자는 점점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나)에는 각 문단별 소재목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 안내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한 제목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독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해 제목을 만들자는 점점 내용은 적절하다.

③ (나)의 '대출 가능 시간 확대'에는 도서 부원이 없어도, 점심시간이 아닌 때에도 대출이 가능하다고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대출 가능 시간을 명시적으로 밝히자는 점점 내용은 적절하다.

④ (나)의 '대출 가능 시간 확대'에 제시된 '도서관원은 앞으로~일에 힘쓰겠습니다.'라는 문장은 소재

목인 '대출 가능 시간 확대'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를 삭제하자는 점점 내용은 적절하다.

⑤ (나)의 '자가 대출 반납기 이용 방법'에서는 글로만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가 대출 반납기 이용 방법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추가하자는 점점 내용은 적절하다.

[43 ~ 45] (작문) 「청소년 국가 지킴이 활동」

(연계: 수능특강 화법과 작문 93쪽)

43. 글쓰기 내용 생성(정답: ④)

'초고'의 4문단에서는 '아직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지역 청소년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으며 그에 대한 홍보 역시 미흡하다'는 점을 언급하였을 뿐,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홍보가 미흡한 이유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오답풀이]

① '초고'의 1문단에서는 '○○고택 주변을 정화하는 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의 국가유산을 돌보는 일에 동참했다는 생각에 뿌듯했'으며 '지역 청소년이 함께 이 활동에 참여해 보람도 느끼고 국가유산에 관심을 갖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에 참여한 소감을 제시하였다.

② '초고'의 2문단에서는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포함한 용어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 대신 사용하게 된 명칭'이라며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된 점을 언급하였다.

③ '초고'의 2문단에서는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는 국가유산을 자발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라며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⑤ '초고'의 6문단에서는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은~물려주는 일이라는 데 의미가 있'으며,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을 통해~안목을 키우는 일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의의를 제시하였다.

44. 자료 활용 및 내용 생성의 적절성(정답: ③)

'초고'의 3문단에서는 '이러한 유익함에 더하여 청소년은 봉사 활동을 하며 보람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보기>에 제시된 '학생의 생각'에서는 '자료의 □과 □을 둘 다 활용하여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종류'와 '활동이 청소년

년에게 도움이 되는 점을 다뤄야겠’다고 언급하였다. 즉 이러한 ‘초고’의 문맥과 ‘학생의 생각’을 고려했을 때 [A]에는 □과 □를 통해 알 수 있는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종류와 이점이 모두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보기>에 제시된 ‘학생이 수집한 설문 조사 자료’의 □에는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활동 중 참여한 활동의 종류’로 ‘주변 정화 활동(50%)’, ‘모니터링 활동(27%)’, ‘홍보 활동(15%)’이 제시되어 있으며, □에는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이 도움이 되었던 점으로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32%)’, ‘지역 국가유산 학습(25%)’, ‘지역 역사 이해(17%)’가 제시되어 있다. ③에서는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이 ‘주변 정화, 모니터링, 홍보 활동 등을 포함’하고, 청소년은 이러한 활동의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의 역사와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며 <보기> □과 □에 제시된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종류와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이 청소년에게 주는 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첫째 문장에서 ‘홍보 및 모니터링, 주변 정화 활동 등 다양하다.’라고 언급하여 □에 제시된 활동의 종류를 제시하고, 둘째 문장에서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유익한 봉사 활동을 스스로 경험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언급하여 □에 제시된 활동의 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초고’의 3문단에서는 [A] 이후에 ‘이러한 유익함에 더하여 청소년은 봉사 활동을 하며 보람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으므로, ‘초고’의 문맥을 고려했을 때 ①은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둘째 문장에서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을 통해 ‘청소년은 국가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기르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소속감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에 제시된 활동의 이점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에 제시된 활동의 종류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첫째 문장에서 □에 제시된 활동의 종류를 언급하고 둘째 문장에서 □에 제시된 활동의 이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과 □은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참여해 본 활동의 종류와 활동이 도움이 되었던 점에 대해 설문 조사한 자료로, 이를 통해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이 ‘주변 정화, 모

니터링, 홍보 활동 순으로 중요하다’거나,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 지역 국가유산 학습, 지역 역사 이해의 순서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이끌어 낼 수는 없다.

⑤ 첫째 문장에서 □에 제시된 활동의 종류를 언급하고 있으나 둘째 문장에서는 각 활동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을 뿐, □에 제시된 활동의 이점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45. 고쳐쓰기의 적절성(정답: ②)

‘친구 1’은 [B]에 대해 ‘문단과 문단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B]의 앞 문단에서는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으나 [B]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를 고려하여 ‘고쳐 쓴 글’에서는 ‘학교에서는 진로 및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가치를 이해시키고,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활동 방법을 지도할 수 있다.’라는 문장을 추가하여 [B]에 제시되지 않았던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답풀이]

① ‘고쳐 쓴 글’에서는 ‘지자체와 지역 단체는 국가유산 관련 캠페인 및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지자체에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B]에서도 ‘지자체나 지역 단체는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해야 한다며 지자체 차원의 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에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구하는 문장을 추가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B]에서는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통해 ‘우리 청소년도 지역 국가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국가유산을 지키는 일에 주도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고쳐 쓴 글’에서도 유지되었다. 이는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활성화 방안이 실현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가 글의 전체 내용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친구 1’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문단에 언급된 내용이나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이 아닌 것을 ‘남겨 두는 게 좋겠’다는 ‘친구 2’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④ ‘고쳐 쓴 글’에서 ‘지자체나 지역 단체는 국가유

산 관련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국가유산 관련 캠페인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초고'의 다른 문단에서는 국가유산 관련 캠페인의 필요성이 언급되지 않았다.

⑤ [B]에서는 '청소년이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에~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며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참여 방법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다룬 [B]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다. 따라서 '고쳐 쓴 글'에서 이러한 내용이 삭제된 것을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은 삭제하'자는 '친구 2'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초고'는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에 대해 다룬 글로,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참여 방법을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

선택 과목(언어와 매체) 해설

[35 ~ 39] (언어)

(연계: 수능특강 언어와 매체 18쪽)

35. 미지칭과 부정칭의 품사(정답: ㉔)

㉔(얼마)는 알지 못하는 가격을 나타내므로 미지칭이며, 서술격 조사와 결합한 명사이다. ㉕(무슨)는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불분명한 일을 나타내므로 부정칭이며, 명사 '일'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㉖(언제)는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때를 나타내므로 부정칭이며, 동사 '보다'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㉗(어떤)는 맥락에 따라 대상을 알지 못하는 미지칭이나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불분명한 부정칭으로 볼 수 있으며, 의존 명사 '분'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㉔의 ㉕(무슨)와 ㉖(언제)는 모두 알지 못함을 나타내며 품사는 서로 다르다는 이해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㉔(얼마)는 미지칭이자 명사이고, ㉕(무슨)는 부정칭이자 관형사이므로, ㉔와 ㉕의 품사는 서로 다르다는 이해는 적절하지만 ㉔가 불분명함을 나타낸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② ㉔(얼마)는 미지칭이자 명사이고, ㉖(언제)는 부정칭이자 부사이므로, ㉔가 알지 못함을 나타낸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으며, ㉔와 ㉖의 품사가 동일하다는 이해도 적절하지 않다.

③ ㉔(얼마)는 미지칭이자 명사이고, ㉗(어떤)는 맥

락에 따라 미지칭과 부정칭으로 모두 볼 수 있는 관형사이므로, ㉔와 ㉗가 모두 알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품사가 동일하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⑤ ㉕(무슨)는 부정칭이자 관형사이고, ㉗(어떤)는 맥락에 따라 미지칭과 부정칭으로 모두 볼 수 있는 관형사이므로, ㉕와 ㉗의 품사가 동일하다는 이해는 적절하지만, 알지 못함과 불분명함을 모두 나타내는 것은 ㉔만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연계: 수능특강 언어와 매체 85쪽)

36. 지칭어와 호칭어(정답: ㉕)

㉔의 '여보세요'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인 '여봐요'를 높여 이르는 말로, 화자인 '아빠'가 청자인 '아들'에게 말하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높임말의 호칭어가 쓰였다. 이는 ㉕의 특수한 의도(여기서는 '질책'이나 '충고', '조언' 정도의 의도)를 가지고 호칭어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㉔와 ㉕는 모두 같은 대상인 '엄마'를 가리키며, 모두 대상을 부를 때 사용되고 있는 호칭어이다. ㉕는 지칭어가 아니라 호칭어이므로, ㉔이 지칭어 ㉕를 통해 확인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이모-조카'의 친족 관계에서 ㉔의 '이모'는 명사인 단어가 단일 형식 그대로 지칭어로 쓰였으나, '처형-매부'의 친족 관계에서 ㉕의 '이모님'은 명사에 접미사 '-님'이 결합되는 복합적 형식이 지칭어로 쓰였다. 따라서 ㉔와 ㉕는 ㉖의 친족 관계에 따라 다른 지칭어가 쓰인 것은 맞지만, 같은 형식의 지칭어가 쓰인 것은 아니다.

③ 제시된 대화 상황은 공적이고 격식적인 상황이 아니라 가족끼리 대화하는 사적이고 비격식적인 상황이며, ㉕의 호칭어는 ㉖의 공적인 직위나 지위 등을 사용하여 부르기 위해 의존 명사 '님'을 붙여 높인 것이 아니라 ㉕의 특수한 의도(여기서는 '충고' 정도의 의도)를 가지고 '님'을 붙인 것이므로 ㉕를 통해 ㉖의 공적이고 격식적인 상황에서 쓰인 호칭어를 확인할 수는 없다.

④ ㉔와 ㉕는 같은 대상인 '이모'를 가리키는 지칭어이며, ㉔과 같이 진로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직위('선생님'으로 추정됨)를 고려하여 ㉕에서 '이모'를 '김 선생님'으로 지칭하고 있지만, '이모'가 발화 현장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㉕는 호칭어가 아니라 지칭어로 실현된 것이다.

(연계: 수능특강 언어와 매체 71쪽)

37.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정답: ①)

‘할아버지는 형님 댁에 계신다.’에서 서술어 ‘계시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은 주어 ‘할아버지는’과 부사어 ‘댁에’로 2개이다. 또한 ‘여객선이 도착한 항구엔 안개가 끼었다.’에서 관형사절의 서술어 ‘도착하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은 주어 ‘여객선’과 생략된 부사어 ‘항구에’로 2개이다. 따라서 ‘계시다’와 ‘도착하다’ 모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2개로 같고, 종류도 주어와 부사어로 같다.

[오답풀이]

② ‘저 친구는 불평이 그칠 날이 없다.’에서 관형사절의 서술어 ‘그치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은 주어 ‘불평이’로 1개이다. 반면 ‘그는 배에서 내리는 장면을 상상했다.’에서 관형사절의 서술어 ‘내리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은 생략된 주어인 ‘그가’와 부사어 ‘배에서’로 2개이다. 따라서 서술어 ‘그치다’와 ‘내리다’는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르다.

③ ‘나는 이 호박을 죽으로 만들 것이다.’에서 관형사절의 서술어 ‘만들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은 주어 ‘나는’과 목적어 ‘호박을’, 부사어 ‘죽으로’로 3개이다. 반면 ‘아버지는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에서 서술어 ‘새우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은 주어 ‘아버지는’과 목적어 ‘밤을’로 2개이다. 따라서 서술어 ‘만들다’와 ‘새우다’는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르다.

④ ‘얼음으로 된 성이 나타났다.’에서 관형사절의 서술어 ‘되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은 생략된 주어 ‘성이’와 부사어 ‘얼음으로’로 2개이다. 한편 ‘그는 남이 아니고 가족이다.’에서 선행절의 서술어 ‘아니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은 주어 ‘그는’과 보어 ‘남이’로 2개이다. 따라서 ‘되다’와 ‘아니다’는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2개로 같지만, 각각 부사어와 보어로 그 종류가 다르다.

⑤ ‘그의 신중함은 아무래도 지나쳤다.’에서 서술어 ‘지나치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은 주어 ‘신중함은’으로 1개이다. 반면 ‘언니는 간이역만 지나치는 기차를 탔다.’에서 관형사절의 서술어 ‘지나치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은 생략된 주어 ‘기차는’과 목적어 ‘간이역만’으로 2개이다. 따라서 동일한 형태의 서술어 ‘지나치다’가 각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는 다르다.

(연계: 수능특강 언어와 매체 236~237쪽)

38.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순서(정답: ①)

①의 ‘실없네’는 ‘실없네→(시럽네)→[시럽네]’의 과정으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데, ‘없’의 ‘ㅄ’에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ㅄ’만 남기 때문에 ‘네’의 ‘ㄴ’ 앞에서 ㉡(비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이 일어나 ㉡이 일어날 조건이 마련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의 ‘깊숙이’는 ‘깊숙이→(깁수기)→[깁수기]’의 과정으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깊’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체된 ‘ㅄ’ 뒤에서 ‘ㅄ’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이 일어나 ㉠이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 일어나 ㉡이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③ ㉡의 ‘짓밟지’는 ‘짓밟지→(진밟지)→(진뽀찌)→[진뽀찌]’의 과정으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짓’의 받침 ‘ㅄ’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것과 ‘밟’의 겹받침 ‘ㅃ’에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것은 서로 관련이 없다. 참고로 ‘짓’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체된 ‘ㄷ’ 뒤에서 ‘ㅄ’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④ ㉡의 ‘꺾는’은 ‘꺾는→(꺾는)→[꺾는]’의 과정으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꺾’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기 때문에 ‘는’의 ‘ㄴ’ 앞에서 교체된 ‘ㄱ’에 ㉡(비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이 일어나 ㉠이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 일어나 ㉡이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⑤ ㉡의 ‘훑고’는 ‘훑고→(훑고)→(훑꼬)→[훑꼬]’의 과정으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훑’의 겹받침 ‘ㅃ’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ㅃ’이 되었기 때문에 ‘고’의 ‘ㄱ’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났으며, 이후 ㉠(자음군 단순화)이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이 일어나 ㉠이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 일어나 ㉡이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며, 이후 ㉠이 일어난 것이다.

(연계: 수능특강 언어와 매체 34쪽)

39. 차자 표기의 방식(정답: ③)

‘웃음이 많다’에서 종결 어미 ‘다’를 ‘多’로 표기하고 ‘다’로 읽는다면, ‘多’를 ‘ 많다’라는 본뜻과 상관없이

음만 이용해 ‘다’로 읽은 것이므로 ㉠이 아니라 ㉡의 방식을 이용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불빛이 일다’에서 ‘불’을 ‘火’로 표기하고 ‘불’로 읽는다면, ‘火’를 ‘불’의 본뜻(훈)인 ‘불’로 읽은 것이므로 ㉠의 방식을 이용한 것이 맞다.

② ‘진흙이 굳다’에서 ‘흙’을 ‘土’로 표기하고 ‘흙’으로 읽는다면, ‘土’를 ‘흙’의 본뜻(훈)인 ‘흙’으로 읽은 것이므로 ㉠의 방식을 이용한 것이 맞다.

④ ‘시옷을 적다’에서 ‘옷’을 ‘衣’로 표기하고 ‘옷’으로 읽는다면, ‘衣’를 ‘옷’의 뜻과 상관없이 ‘옷’으로 읽는 것이므로 ㉠의 방식을 이용한 것이 맞다.

⑤ ‘찬물을 담다’에서 ‘을’을 ‘乙’로 표기하고 ‘을’로 읽는다면, ‘乙’을 ‘새’의 뜻과 상관없이 음을 이용해 ‘을’로 읽는 것이므로 ㉡의 방식을 이용한 것이 맞다.

[40 ~ 43] (매체) 「독도 바다사자」

(연계: 수능특강 언어와 매체 132~135쪽)

40.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정답: ㉡)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위해 ㉠은 바다사자의 이미지와 ‘멸종된 독도 바다사자 복원 움직임’이라는 문자를, ㉡은 베링해 등에서 바다사자 개체군을 들여움을 나타내는 이미지와 ‘다만, 베링해 등에서 혈연적으로 가까운 개체군을 찾아서 들여오는 방식으로 복원은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문자를 사용하여 복합 양식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은 보도의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 취재 현장에서 보도하는 영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은 취재 현장에서 보도하는 영상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은 보도 내용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 인터뷰 대상에 대한 정보인 ‘△△해양연구소/이○○ 연구원’을 제시하고 있지만, ㉠은 인터뷰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 ㉡, ㉢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인 현재 미세 먼지에 대한 정보를 화면 상단에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보도의 주요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⑤ ㉠, ㉡, ㉢은 보도 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도의 핵심 내용을 화면 하단의 자막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1. 매체 자료의 수용 관점(정답: ㉡)

‘행복이’는 ‘지역 어민 대표’의 바다사자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협조해야지요’라는 발화에 주목하여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을 뿐, 자신이 이해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다랑이’는 ‘전문가’의 ‘베링해 등에서 혈연적으로 가까운 개체군을 찾아서 들여오는 방식으로의 복원은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발화에 주목하여 이것이 오히려 우리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냐는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③ ‘강치맘’은 ‘관계자’의 ‘독도 지역은 서식 환경의 적합성 면에서도 독도 바다사자의 복원에 유리합니다’라는 발화에 주목하여 서식 환경의 적합성 면에서 독도 지역이 복원에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④ ‘보리보리’는 ‘기자’의 ‘일제 강점기 남획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급격히 줄다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는 발화에 주목하여 어로 금지 구역 설정 등의 보존 대책을 세우라는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⑤ ‘독도사랑’은 ‘진행자’의 ‘지역 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라는 발화에 주목하여 지역 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한 것이 확실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2. 매체의 언어적 특성(정답: ㉣)

㉣에서는 연결 어미 ‘-고’를 사용하여, 독도 바다사자의 복원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이유인 다른 멸종위기 동물보다 인간과의 충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과 독도 지역은 서식 환경의 적합성 면에서도 독도 바다사자의 복원에 유리하다는 점을 나열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에서는 보조사 ‘는’을 사용하여, ‘예전에 독도와 인근 해역에 살았던 바다사자를 가리키는 말’이 독도 바다사자임을 나타내고 있다.

② ㉢에서는 보조사 ‘만’을 사용하여, 독도 인근 해역이 독도 바다사자의 주요 서식지이자 번식지였던 시기가 ‘1900년대 초까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③ ㉡에서는 연결 어미 ‘-다가’를 사용하여, 독도 바다사자의 개체 수가 급격히 줄던 상태가 중단되고 독도 바다사자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는 상태로 바뀌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⑤ ㉢에서는 피동사 ‘전망되다’를 사용하여, 독도 바다사자의 복원이 ‘독도의 옛 모습을 찾고 생물 다양

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주제를 숨기고 있다.

43. 매체 자료의 정보 구성 및 제시 방식(정답: ②)

포스터에서는 행사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상위와 하위 항목 앞의 기호를 달리하여 제시하고 있을 뿐, 글자 크기와 굵기를 서로 달리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 ① 포스터에서는 독도 바다사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오른쪽 하단에 '독도 바다사자 알아보기(QR 코드)'를 제시하고 있다.
- ③ 포스터에서는 캠페인의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독도의 옛 모습을 찾기 위한 독도 바다사자 복원!!'이라는 홍보용 포스터 제목을 글 상자에 넣어 상단 중앙에 제시하고 있다.
- ④ 포스터에서는 독도 옛 모습 찾기에 동참하자는 의미를 담기 위해, 학생의 말풍선에 '독도의 옛 모습을 다시 찾을 때까지 우리 함께합시다.'라는 청유형식의 문구를 제시하고 있다.
- ⑤ 포스터에서는 독도와 독도 바다사자가 함께하는 독도의 옛 모습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독도 앞에서 독도 바다사자가 헤엄치고 있는 모습을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44 ~ 45] (매체) 「졸업 앨범 앱」

(연계: 수능특강 언어와 매체 218~221쪽)

44. 매체 활용 방식(정답: ⑤)

'서형'은 '슬라이드 자동 넘김' 기능이 실제로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영상 공유' 기능을 사용한 것일 뿐, 회의 참여자들의 선호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 공유 기능'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 ① '나영'은 회의 참여가 불가능한 '수민'을 위해 회의를 녹화해서 파일로 저장하고 있다.
- ② '지현'은 게시판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채팅으로 '<https://www.○○고.kr/○○고> 학생회'와 같이 학생회 사회 관계망 서비스 게시판 주소를 전송하고 있다.
- ③ '민진'은 게시판에 제출된 의견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소회의실을 만들어 회의 시간을 줄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 ④ '은준'은 개인적으로 '수민'에 대한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1:1 채팅인 '귓속말' 기능을 활용하여 '나영'과 대화하고 있다.

45. 생산된 매체 자료에 대한 이해(정답: ⑤)

㉔('쪽지 보내기')는 '친구 찾기' 메뉴에 '쪽지 보내기' 기능을 넣어서, 친구에게 쪽지를 보낼 수 있게 하면 어떠냐는 '지현'의 제안과 '발신자가 쪽지를 보내면 수신자 휴대 전화에 알림이 가게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으니 함께 반영하자.'라는 '은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작한 것이다. '쪽지 보내기' 기능을 사용하여 쪽지를 보내면 수신자 휴대 전화에 알림이 자동으로 가므로, 쪽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려려면 수신자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접속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㉔('학교 누리집 바로 가기')는 '서형'의 두 번째 발화를 반영하여 제작한 것으로, 앱 이용 중에 학교 누리집에 접속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메뉴를 이용하면 학교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되어 편리하다.
- ② ㉔('나의 방')과 '친구 찾기'는 '은준'의 두 번째 발화와 '윤하'의 두 번째 발화를 반영하여 제작한 것으로, 사용자는 '친구 찾기'에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 바로 가기'를 클릭하여 친구가 '나의 방'에 입력해 둔 계정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 ③ ㉔('나의 서재')는 '지현'의 세 번째 발화를 반영하여 제작한 것으로, 학교생활 중에 본인이 썼거나 간직하고 싶은 글을 해당 메뉴에 올려 두면 저장한 글을 보고 싶을 때 다시 열어 볼 수 있다.
- ④ ㉔('행사 사진')는 '윤하'의 세 번째 발화를 반영하여 제작한 것으로, 학교 행사들을 추억하고 싶을 때 해당 메뉴를 이용하면 입학 때부터 지금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행사 사진들을 다시 볼 수 있다.